

돈 안되는 소금...태양광에 자리 빼앗기는 염전

신안 900개 염전 중 465건·298만㎡ 축구장 417개 면적 허가 천일염 가격 2014년 2625원에서 올 2625원으로 52.2% 감소 신안염전 50% 임차인...무분별한 태양광 개발 규제 기준 없어

저염식 확산 등으로 천일염 가격이 5년 새 반토막 나면서 국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신안 천일염 사업이 위협받고 있다. '염전 데 덮친 격'으로 신안 천일염전 절반 가까이 태양광 발전시설 전환을 앞두고 있어 '천일염 1번지'의 위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신안지역 염전 900개 가운데 465개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총 면적 179만2033㎡에 달하는

401건이 허가를 받았고 올해는 64건(119만 1203㎡)이 허가 처리됐다. 이들 면적을 합치면 298만3236㎡(90만2428평)으로 이는 축구장(7153㎡) 417개 크기에 달한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태양광 설치 신청 대부분을 허가해주고 있다. 신안 염전 태양광 설치 신청 건수는 지난해 457건과 올해 9건 등 466건이다. 김중희(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신안지역에

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이유로 폐전된 염전은 2017년 5개(15만2000㎡), 2018년 4개(7만5000㎡) 등 20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집계된 전국 폐전의 3분의 1(29.3%) 수준이다. 무분별하게 신안 천일염전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이유는 천일염산업 종사자 절반 가까이 가 땅을 빌려쓰는 임차인이기 때문이다. 천일염전을 직접 꾸리는 어업인들은 주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을 때 증금속 등 유해물질 유입과 바람 차단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지역 천일염 평균 산지 가격(20kg)은 2014년 5500원에서 올해 2625원으로 52.2% 감소했다. 천일염 가격 내림세는 10년 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천일염 한 가마 가격이 커피 한 잔에

도 못 미치는 이유는 늘어나는 재고와 수출 경쟁력 부족으로 분석된다. 신안 천일염은 최근 3년 간 평균 22만t이 생산되고 있지만 팔리지 못해 쌓인 재고는 20만t에 달한다. 신안군은 내수 부진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에 눈을 돌렸지만 지난해 전체 천일염 수출량 1900t의 0.1% 수준인 3만t을 수출하는 데 그쳤다.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은 사유 재산이라 태양광 설치를 제재할 근거가 없고 천일염 생산 과잉의 측면으로 보면 적절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천일염 등급제 도입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고, 오는 2021년 완공되는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통해 연간 1만t 천일염 상품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 가능성에 난항 트럼프대통령 탄핵조사에 불확실성 확대 반도체 업종 상승세에 증시 하락폭 제한적

미중 무역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침체우려가 미국경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은 지난달 미중 차관급 회담에서 '스몰딜' 가능성이 커지던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보였고 민주당이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시작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특히 미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8월 49.1에서 9월 47.8로 하락하면서 미국 경기위축 시그널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WTO가 유럽연합이 유럽 항공사인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결을 내리자 미국 행정부가 EU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유럽으로까지 관세전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요일 발표된 미국 실업률에서 확인된 것처럼 경기하강 우려는 있지만 미국경제는 주요국가중에서 가장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미끼로 대선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들을 조사하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미국 하원이 탄핵조사를 시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가능성은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그런데도 탄핵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엘리자베스 워런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워런 후보의 정책이 IT기업들의 기업분할(독점분쇄), 법인세 인상, 부유세 신설, 건강보험 공영화 등 대체로 반기업적이라는 점인데, 특히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IT(인터넷)업체와 제약업체들의 약가정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탄핵 국면은 탄핵자체보다는 미중 무역협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탄핵이라는 내부 문제로 무역협상에 강하게 나서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해 미국행정부 가 대중국 해외투자를 차단하고 현실성이 매우 낮지만 중국기업의 미국 상장폐지를 거론했듯이 회담 전까지 오히려 더 강경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몰딜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협상성사여부가 달려 있어 타격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주 10-11 일 예정된 미중 고위급협상 결과에 따라 4분기 뉴욕증시와 글로벌금융시장의 방향성과 변동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협상결과에 관심이 필요하다. 협상이 타결된다면 미중무역분쟁 심화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국내증시에 호재로 크게 작용할 것이고 협상이 다시 어려워져도 2019년 미국제조업 부진에도 테크(Tech)업종 중심으로 상승한 미국증시와 달리 국내 성장주의 상승은 크지 않았고 한국증시 시가총액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과 경기 민감 및 필수 소비재 섹터 주기도 최근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어 국내증시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2000포인트 이하에선 업종대표주와 지수 ETP로 다시 매수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11월8일 MSCI 지수 반기 리밸런싱 종목변경이 결정되고 26일 종가기준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후 총 13번의 지수 정기변경을 사례를 살펴보면 변경종목 확정 40여 일 전부터 편입종목은 평균 26% 상승했고 편출종목은 평균 8.3% 하락했다. 현재까지 편출요건을 고려하면 편입대상종목은 케이엔터블유, 현대엘리베이터, 한화에너지스페이스 순으로 예상되고 편출종목은 신라전, 셀트리온제약, HDC현대산업개발이 예상된다. 해당종목의 급격한 주가변동이 발생한다면 변동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편입가능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



정계두
(유틸투자증권 광주지점장)

광주농협, 조합원 법률지원 강화 법무법인 세광과 업무 협약

광주농협(조합장 한정섭)이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농협은 최근 법무법인 세광과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세광은 광주농협 전담 법률고민으로 활동하며 ▲연중무휴 24시간 법률상담서비스 ▲생활법률 강의 ▲무료 법률상담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광주농협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은 '법률지원제도'의 무료 법률상담·자문, 계약 자문, 소송 지원, 법률비용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조합장은 "조합원과 고객이 일상 생활과 사업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과 상담·지도·협력·보호를 할 예정"이라며 "조합원과 고객의 고충과 고민까지 어루만지는 법률복지 문제에까지 영역을 넓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미끌미끌 맨손 장어잡기 힘들어요" 제4회 어식백세 전남 제철 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린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추억의 총장축제' 행사장에서 '장어맨손잡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민물장어를 잡고 있다.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직거래장터가 열린 4~6일 총 9000여 명의 방문객과 4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협 제공>

청년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6.8%

청년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열약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8년 3년 동안 20~30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평균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업인은 1만4000명으로, 전체 어가인구(20~59세) 4만6000명 중 30.4%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35.6%보다도 낮은 수치다. 특히 2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은 2016년 0.7%(1만2551명 중 96명)이었고 2017년 0.8%(1만3404명 중 120명), 지난해에는 1%(1만4081명 중 148명)를 나타냈다. 어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지난해 29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 50만9000원을 크게 밑돌았다. 오 의원은 "청년 어업인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은 이들의 노후대책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금액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8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1.2% 감소

오징어 102%↑·고등어 58%↓ 해양수산부는 8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2만5000t, 오징어 1만t, 고등어 7300t, 전갱이 6200t, 갈치 4600t 등이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102%, 전갱이가 121%, 꽃게가 81% 각각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반대로 고등어는 58%, 참조기는 29% 각각 감소했다. 멸치, 갈치, 청어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오징어의 경우 올해 1~3월 주산량인 동중국해에서 적정산란 수온이 형성됨에 따라 원활한 산란환경이 조성돼 여름철 주 어종인 서해에서 어군 밀도가 크게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고등어는 주 어종인 제주도 주변 해역의 남해 동부해역과 서해 남부해역에 걸쳐 평년보다 1~2도 수온이 낮고 짙은 태풍으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어획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8월 연근해어업 생산액은 지난해보다 11.3% 증가한 328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동부 센트레빌,상가 사정상 급매 |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급매 - ~~9억~~ → 7억원
- 임대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350만원

덕남동,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권

- 덕남동 임야,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